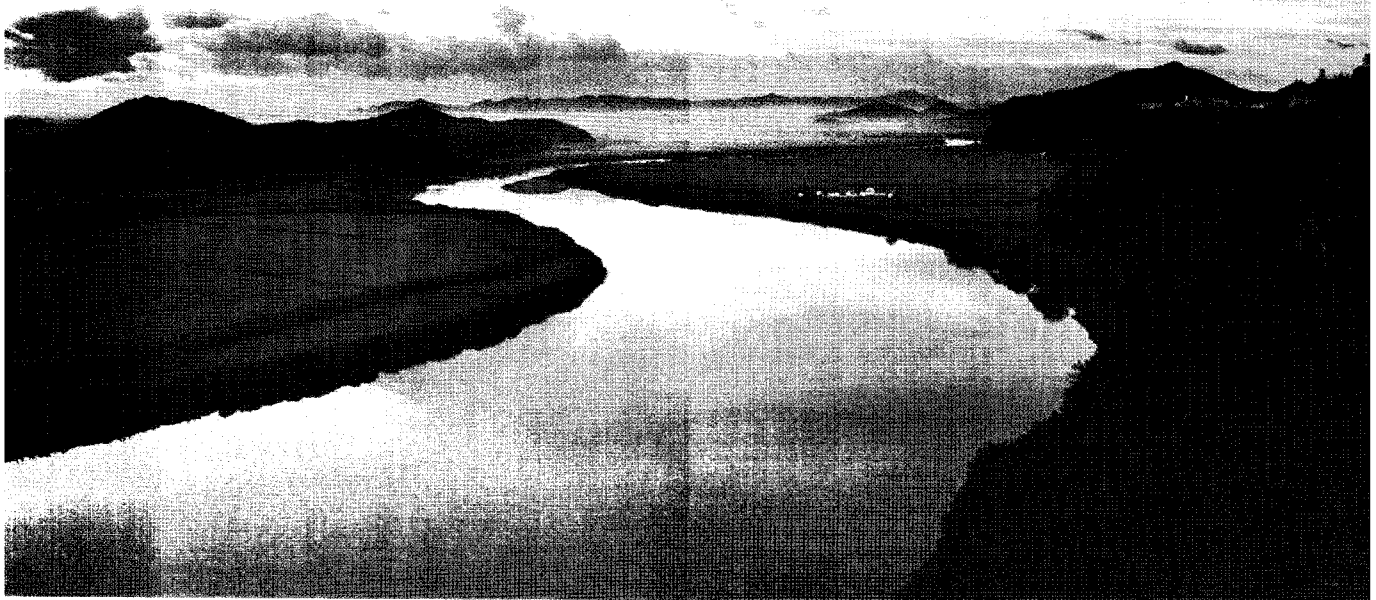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2

River & Culture



# 영산강의 근대사: 하천과 지역민의 삶



이경아 |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소 연구원  
(ga2626@hotmail.com)

전남 담양군 용소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흘러 황해로 흘러드는 강. 영산강은 우리나라 4대강 중에 하나이다. 영산강은 담양군에서 시작하여 황룡강, 지석천, 고막원천 등 작은 하천을 합쳐 장장 삼백 오십리 호남벌을 지나고 있으며 하구둑을 통해 서해로 137km를 흐른다. 영산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에 견주어 길이가 짧은 편이나 20년 전에는 교통로로서의 역할은 결코 손색이 없었다. 이는 어느 강보다도 조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며, 나주의 영산포 상류 25km 되는 지점(목포로부터 73km)까지 바닷물이 드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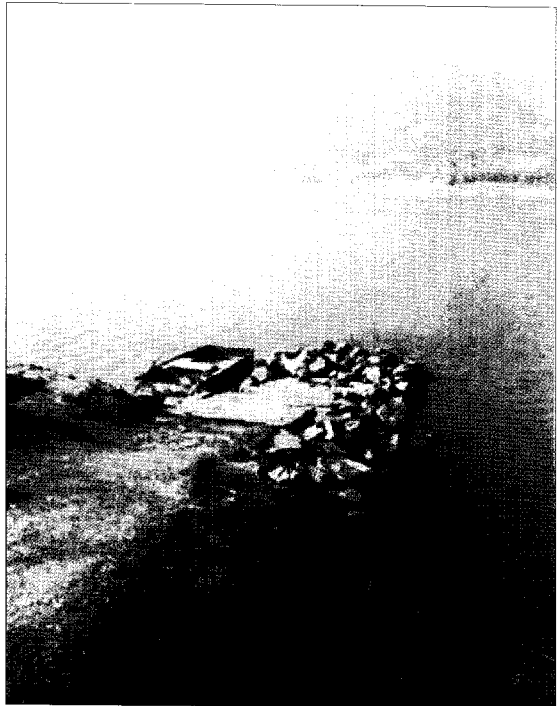
영산강은 고대부터 한반도 내륙과 연안을 잇는 교통로였

고, 중국과의 교류의 관문 역할을 하였으며, 내륙수로를 이용한 주운기능이 활발하였다. 영산강의 주운은 상류에 위치한 광주시 광산구 서창까지도 가능해 뗏목이 운행되었으며, 영산강 지류인 고막원천은 만조시 50~100척을 싣는 범선이 운항하였다고 한다. 영산포는 20~30톤급의 중선배가 조석을 이용하여 오르내리면서 주운 및 육상교통 중심지의 이점을 살려 농산물의 집산지, 화물의 적환지가 되어 급성장하기도 하였다. 목포~영산포간에는 5~10리마다 포구가 위치하여 약 40개에 달하였으며 각 포구는 육지와 섬의 물류 교류와 수송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지였다. 적어도 1981년 12월 하구둑

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생명의 물길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영산강 하구둑이 축조되면서 물고기의 이동을 끊고 나룻배들의 왕래조차 허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영산강의 역사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볼 때 제1기는 1897년 목포항 개항 이전의 시기로 세곡 운반 등 화물 운송과 문화 교류 및 사신 왕래, 수군 이동 및 전략기지와 같은 군사적 목적, 어로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2기는 목포 개항 이후부터 1912년 국도 1호선 개통과 1913년 호남선 철도 개통되기 이전 시기로 목포항 개항과 더불어 일본인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내륙수로에 동력선과 범선이 운항되면서 주운이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제3기는 도로와 철도 개통 이후부터 영산강 하구둑 축조 이전까지의 시기로 3기에 들어서 주운의 중요성이 점차 낮아지면서 쇠퇴하였던 시기였으며, 영산강의 주운기능은 1977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렇듯 영산강은 지역민들과 함께 해온 역사의 산실이며 삶의 터전이었다. 인류는 강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어왔고 강을 경계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강 건너 마을은 바로 이웃이 되었다. 그것은 영산강 여기저기에 있던 강나루가 그 역할을 하였다. 한때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이 낡실대는 하류, 그 중 몽탄강은 전남 무안군 몽탄면과 나주시 동강면 사이를 흐르는 영산강 하류의 또 다른 이름이다. 구전에 의하면, 후삼국시대 견훤군에게 쫓긴 왕건이 강물이 가로 막혀 진퇴양난에 놓여있을 때 꿈에 백발노인이 현몽해 주어 위기를 모면하고 견훤군을 물리쳤다고 한다. 그 후 이 강을 현몽에 의해 여울을 건넜다하여 '몽탄강(夢灘江)'이라 부르게 되었고, 몽탄강 하류의 전승지를 파군천이라 하였으며, 이 냇가를 이은 다리를 '파군교(破軍橋)'라 하였다. 몽탄강을 사이에 두고 현재 나주군 동강면 옥정리 몽송부락은 하몽탄이라 하고,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는 상몽탄이라고 부르고 있다. 영산강에서 나루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곳으로 지역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곳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림 1〉 몽탄나루 ©2003 안인호(출처:오마이뉴스)

일로 쪽에서 영산강 호반도로를 타고 오다가 만나는 이곳 몽강리 신촌 마을 입구 모퉁이를 주민들은 둔코종, 둔구정, 돌곶이라 부르고 있다. 이 지명은 영산강을 향해서 돌출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곳에 물이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가 마치 돼지가 구시 통에 코를 박고 먹이를 먹는 형국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이 바로 지금의 석정포이다. 몽탄면 몽강리에 위치한 석정포는 사포(함평), 중천포(고막원), 영산포(나주)와 더불어 영산강 4대 포구 중 하나였을 만큼 아주 번성했던 포구로 여겨진다. 목포에서 영산포를 오가던 선박들의 중간 기착지로서 영산강을 오르내리는 뱃사공과 상인들의 중간 휴식처 역할을 했던 절대적 중요 거점지였던 것이다. 특히 웅기의 최대 적출항으로서 역할을 하였는데, 즉 웅기와 원료의 수송기점 및 적치와 하차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석정포구 앞에 주막촌 기능을 겸한 포구촌이 4~5가구가 형성될 정도로 매우 번화했던 포구였다.

석정포구에서 백 여미터 거리에 위치한 몽강리 신촌마을. 조상 대대로 웅기(甕器)를 구웠다고 하여 과거 이곳을 점촌(縮村), 점등이라 하였다. 신촌에 웅기마을이 조성된 배경은

옹기원료(질, 점토, 고령토) 산지였던 나주 동강(장동마을, 수문마을)이 바로 강 건너편에 위치하였고, 영산강을 따라 도서(다도해)까지 연결되는 제풍수송에 유리한 수상교통의 요지였기에 가능하였다. 질이라고 부르는 옹기 재료와 섬 지역의 나무들이 이 포구(일명 '독구쟁이'라 칭하는데 이 마을에서 생산된 옹기를 실어 나르고, 옹기를 만들 때 필요한 흙이 하여되었던 포구이다)를 통해서 마을로 들어왔으며, 점촌에서 만들었던 옹기는 이 석정포구에서 흑산도와 멀리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로 팔려 나갔다. 한척의 풍선배에 실려 뱃길을 따라 목포, 제주, 흑산도 등 주로 서남해 도서지역으로 판매되었는데, 이때 남자들은 옹기를 빚어야 했기에 옹기



〈그림 2〉 지개로 옹기는 옹기상인 (출처 네이버)



〈그림 3〉 50년대의 석정포구 (신촌 정철수님 소장)

이렇듯 점촌이 옹기의 생산과 판매에 유리했던 몇 가지 이유 중, 첫째는 지리적인 요건이다. 영산강이라는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품의 판로나 재료의 운반에 있어서 육지보다는 상대적으로 편리해 물류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강 건너 이웃한 마을에서 쉽게 좋은 흙

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과 인근 야산에서 가마를 땄 나무를 구하기 쉬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 도공의 확보가 쉬웠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강진의 청자 도요지가 있어 청자를 구웠던 도공들이 청자가 쇠퇴하자 이곳으로 흘러와 옹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석정포구에는 옹기를 나르는 건아꾼들과 옹기를 팔러나가는 부녀자들과 상인들로 항상 북적거렸다. 또한 일반적으로 옹기 빚는 마을들이 바람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지형조건상 옹기처럼 움푹 들어간 곳에 입지하고 있는 경향에서 볼 때, 점등마을은 옹기를 빚기에는 아주 좋은 지형적 조건을 지닌 곳이라 할 수 있으며, 경사진 곳에 위치해 있어 통굴(대포굴)의 건립에도 용이하였다. 이처럼 옹기제작에 필요한 조건인 대토, 물, 땀감의 수송이점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석정포가 영산강변의 최대 옹기 적출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해상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판매권이 확대되어 일제시대 전국적 상권을 갖는 최대 번성기를 맞이한다. 그리고 점촌마을은 옹기를 생산한 이후 1960년대에 가장 활성화되었는데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타 지역에서 유입해 들어오면서 이주민들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점촌이 크게 활성화된 계기가 되었고 1960~197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당시 옹기 굽는 가마도 4개나 되었고, 40세대 백여명의 주민이 모두 옹기로 먹고 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석정포구의 명성은 영산강이 막히면서 포구의 기능이 끝나고, 해방 후 공업화에 밀려 급속한 쇠퇴를 맞는다. 옹기는 우리네 삶속에서 오랫동안 함께하며 대를 물리던 살림도구였지만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 그릇이 옹기를 대신하면서 차츰 설자리를 잃고 말았다. 이처럼 1970년대 이후 옹기 수요가 급격히 퇴락하고, 영산강 하구가 막히면서 포구의 기능을 잃게 되면서, 석정포구와 함께 점촌 마을의 옹기도 시들해져버렸다.

우리의 옛 삶과 어우러져 형성된 기층민들의 문화는 그들의 부침과 함께 스스로 분명하고도 가치 있는 흔적을 남겨왔으며, 직간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뤄왔지만 그에 합당한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채 아쉽게도 서구화와 근대화 속에서 잊혀져간 게 사실이다. 옹기의

문화는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소박한 신앙을 그대로 품어 간직하고 있다. 이렇듯 옹기는 단지 하나의 그릇으로서만이 아니라, 수많은 삶의 요소들을 담고 있는 문화적 매개체였던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에 올라 우연히 정착한 점촌마을에서 옹기를 배우기 시작해 58년간 전국을 누비며 오로지 우리 삶 속에 놓인 옹기를 빚어왔던 황영수(75세, 신촌마을)씨의 구술을 통해 각 지방의 특색이 담긴 옹기를 지고 마을과 마을, 장과 장을 돌아다녔을 장인들과 상인들의 다양한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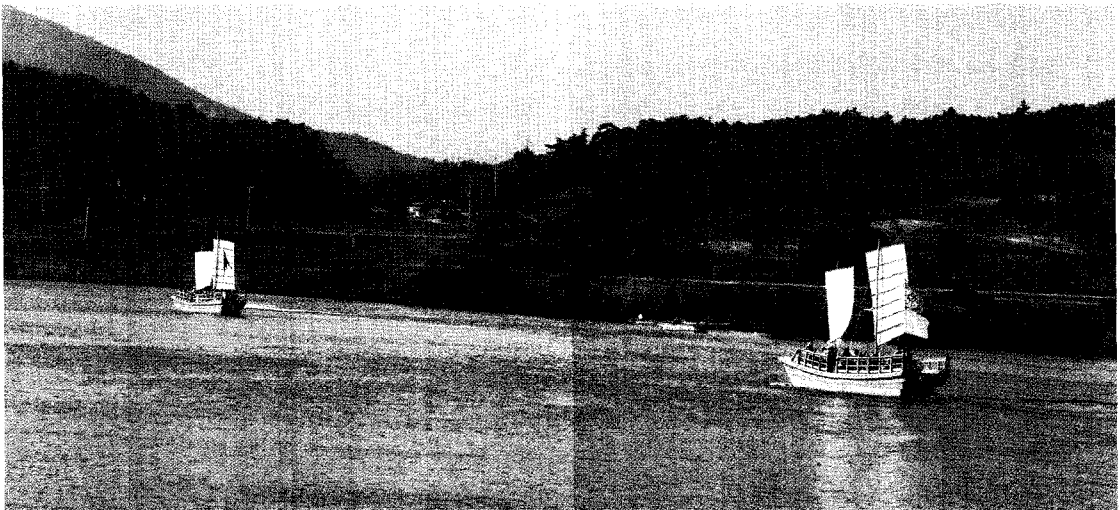
〈그림 4〉 신촌점촌마을의 역사에 대해 구술해 준 황영수님 (뒤쪽은 당시 옹기를 굽던 대포가마)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영산강은 호남사람들의 마음 한 복판에 자리 잡은 삶과 꿈의 물결이다. 호남인의 정서와 비전을 안고 유유히 역사의 뒤편길을 흘러가는 마음의 강이다. 영산강 하류는 서남해의 바닷물이 유입되는 곳으로, 물길을 따

라 들어오는 해산물과 육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만나는 교역의 장소였고, 이러한 입지적 조건을 지닌 영산강 유역은 인구와 문화가 이동하는 길목이었다. 최근 옛 영산강의 영화를 찾고 강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로 다시 강을 흐르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 끝에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고려 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목포에서 나주 영산포까지 50여km를 운항했던 전통 황포돛배가 30여년만인 지난 6월 출항식을 갖고 영산강에 다시 뗏다. 나주 다야뜰에서 중촌포까지 6km를 운항하도록 하였다. 강에는 여러 용도의 배가 다니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물류와 관광 등을 위한 주운(舟運)은 인류 문명의 발원지인 4대강에서부터 발달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지의 내륙에 문명의 불씨를 당긴 것도 뱃길이 열리면 서부터였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영산강에 뱃길이 열리면 단순히 경제적 물류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풍성한 물길은 주변에 관광레저와 산업, 문화·교육기능을 활성화시켜 영산강 일대를 역사, 문화, 관광, 물류거점으로 개발,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펼쳐나가게 될 것이다. 영산강에 물이 차면 자연스레 뱃길이 다시 열려 과거의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참고문헌

오마이뉴스 기사 "너루는 단짠을 건너가는 문(門)", 2003.2.22



〈그림 5〉 30여년 만에 영산강에 다시 띄어진 황포돛배